

## 그린산업 포인트

7월 누적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0.3% 성장에 불과. 하이브리드가 고성장하는 것과 대조적. 정책 지원 약화를 반영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추가 하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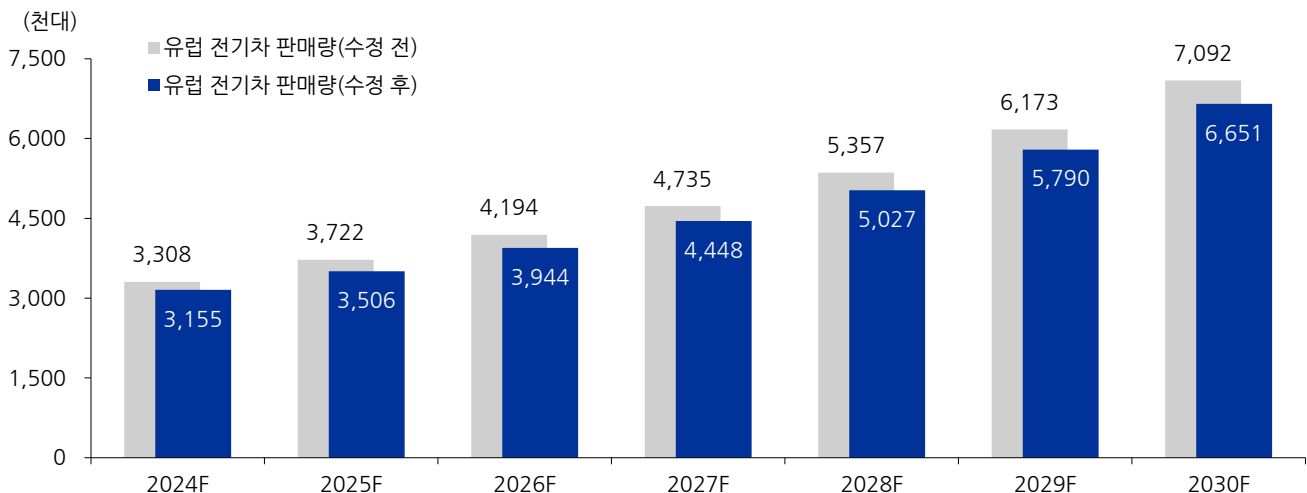
# 전기차/배터리산업

## 유럽 전기차 판매량 추정치 추가 하향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2024년, 2025년 판매 추정치 각각 330.8만대에서 315.5만대, 372.2만대에서 350.6만대로 하향
- 7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 165.4만대로 전년대비 0.3% 증가에 불과
- 당사 추정치는 2024년 2.6%, 2025년 11.1%의 유럽 전기차 판매 증가를 예상
-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저가 모델 시트로엥 e-C3, 스텔란티스/Leapmotor의 T03 등의 출시를 기대한 수치
- 저가 모델의 판매까지 활성화되지 못하면 유럽의 2024년 전기차 판매는 역성장 가능성 높아져
- 최근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주가 반등 이유는 1) 낙폭과대 2) 금리하락 3) 트럼프 낙선 기대감 때문
- 당사는 금리하락과 해리스 효과가 전기차 시장 둔화를 반전시킬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
- 그 이유는 1) 현재 업황 둔화는 금리요인 보다 소비자의 선호가 하이브리드로 이동했기 때문이고 2) 트럼프 때문에 업황 둔화가 온 것이 아니고 유럽과 미국 기존 정부에서의 지원 정책 약화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
- EU 국가들의 보조금 재개, 내연기관차 규제 강화, 미국 해리스 당선 후 연비규제 강화 등이 업황 반전의 전제 조건
- 배터리 관련주 투자는 보수적인 시황 하에서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위주로 중장기 투자가 바람직

## 유럽 전기차 판매 추정치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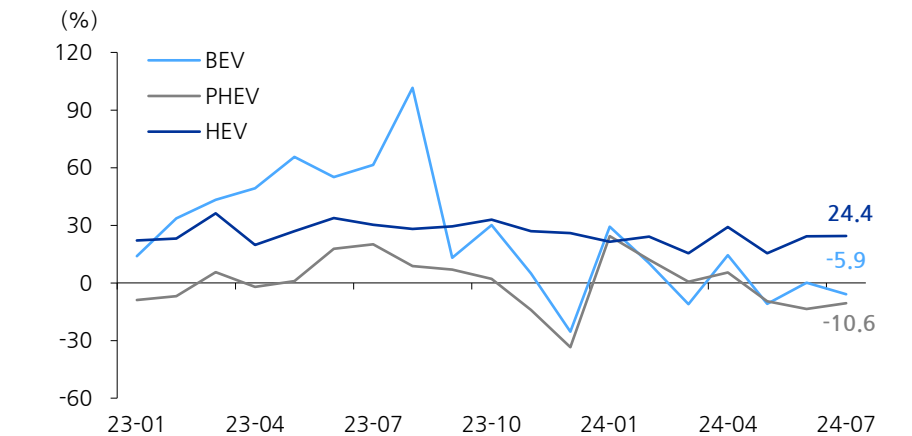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 부진한 유럽 전기차 업황, 하이브리드 약진과 대비

유럽의 7 월까지 누적 전기차 판매는 165.4 만대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이는 자동차 판매 성장률 3.8%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순수전기차는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반면 일반 하이브리드는 239 만대로 전년대비 21.6% 고성장했다. 유럽 전기차 업황 둔화의 주요 원인이 자동차 시장 전반의 약세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호도의 변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을 변화게 만든 근본 원인은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확대 정책 후퇴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폐지, 강력한 EURO7 도입 연기에 이어 다수당인 EPP 와 독일 완성차업체들은 2035 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한 일부 후퇴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조가 바뀌어야 유럽 전기차 시장의 진정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이를 반영해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를 위와 같이 추가 하향한다.

도표 1. 유럽 월별 BEV, PHEV, 하이브리드 증가율 추이



자료: ACEA, 유진투자증권

최근 배터리 관련주 반등은  
업황 요인이 아님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거론되는 원인은 1) 낙폭과대 2) 금리인하 3) 트럼프 낙선 기대감 때문이다. 주가 하락 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다만 금리와 트럼프 이슈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이다. 유럽의 경우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재의 전기차 업황 둔화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전체 자동차 판매가 현재까지 나쁘지 않았고, 하이브리드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이슈도 마찬가지이다. 심리적인 악영향은 있었지만, 미 대선 문제가 부각되기 전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성장 둔화에 직면했었다. 더 깊숙이 보면 현재의 하이브리드 전성시대를 유도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하이브리드 중심의 연비규제 도입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을 업황 반전의 선행지표로 판단할 수 없다.

보수적인 업황 기준에도  
밸류에이션 낮은 종목  
위주 중장기 투자 바람직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력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판매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국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강화 정책의 재개, 유럽의 중국 배터리에 대한 강력한 진입 금지 등이 시행되어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고성장세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된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보수적인 업황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 하에서도 매력적인 종목들에게만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도표 2.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b>북미 전기차 판매량</b>	<b>1,042</b>	<b>1,621</b>	<b>1,949</b>	<b>2,464</b>	<b>3,214</b>	<b>4,129</b>	<b>5,129</b>	<b>6,168</b>	<b>7,296</b>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712	2,173	2,853	3,688	4,590	5,509	6,492
YoY(%)	51.2	56.3	19.2	26.9	31.3	29.2	24.5	20.0	17.8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10.3	12.8	16.4	20.7	25.3	29.7	34.4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b>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b>	<b>6,229</b>	<b>8,515</b>	<b>10,567</b>	<b>12,479</b>	<b>14,559</b>	<b>16,736</b>	<b>18,947</b>	<b>20,845</b>	<b>22,508</b>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039	11,816	13,724	15,679	17,609	19,127	20,272
YoY(%)	83.7	36.6	24.0	17.7	16.2	14.2	12.3	8.6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2.4	37.0	41.7	46.3	50.5	53.2	54.8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810	975	1,159	1,367	1,607	1,908	2,294
<b>유럽 전기차 판매량</b>	<b>2,602</b>	<b>3,075</b>	<b>3,155</b>	<b>3,506</b>	<b>3,944</b>	<b>4,448</b>	<b>5,027</b>	<b>5,790</b>	<b>6,651</b>
YoY(%)	15.1	18.1	2.6	11.1	12.5	12.8	13.0	15.2	14.9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3.2	25.3	27.9	30.8	34.2	38.6	43.4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b>전세계 전기차 판매량</b>	<b>10,091</b>	<b>13,689</b>	<b>16,294</b>	<b>19,248</b>	<b>22,714</b>	<b>26,539</b>	<b>30,576</b>	<b>34,541</b>	<b>38,487</b>
YoY(%)	55.0	35.7	19.0	18.1	18.0	16.8	15.2	13.0	11.4
<b>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b>	<b>12.7</b>	<b>15.7</b>	<b>18.1</b>	<b>20.8</b>	<b>23.8</b>	<b>27.3</b>	<b>30.8</b>	<b>34.1</b>	<b>37.3</b>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6.30 기준)